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국가정체성 조사

*연구수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20. 08. 12.(수)

※ 조사개요

- 모집단: 중학교 1학년~3학년에 재학 중인 비다문화/다문화가정 자녀
- 표본틀: (비다문화가정) 엠브레인 패널 가입자 중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2~3학년 (다문화가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다문화가정 아동 list 중 중학교 1~3학년
- 표집방법: (비다문화가정) 2020년 7월 주민등록통계 기반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만14~15세 성별 인구수 비중에 기반한 층화표집 (다문화가정) 단순무선표집
- 표본크기: 200명
- 표본오차: 95% 신뢰구간 하에서 ±6.9%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 조사일시: 2020년 7월 27일 ~ 2020년 8월 6일
- 조사기관: (주)마이크로밀 엠브레인

※ 응답자 분포

		명(빈도/%)	
성별	남자	110(55.0)	
	여자	90(45.0)	
학년	중학교 2학년 이하	93(46.5)	
	중학교 3학년	107(53.5)	
거주 지역	서울	81(40.5)	
	경기	119(59.5)	
가정 형태	다문화 가정	87(43.5)	
	비다문화 가정	113(56.5)	
다문화 가정 유형 ¹⁾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72(36.0)
		국제결혼가정(국외출생) & 외국인가정	15(7.5)
	비다문화 가정	113(56.5)	
다문화 가정 출신국적	다문화 가정	중국	24(27.6)
		중국(조선족)	10(11.6)
		아시아(일본/베트남/필리핀/태국/캄보디아)	28(32.2)
		러시아/중앙아시아	7(8.0)
		미국/유럽	7(8.0)
다문화 가정 자녀 한국 국적 여부	다문화 가정	기타	11(12.6)
		있음	77(88.5)
가족유형		없음 & 잘 모름	10(11.5)
		양부모와 자녀	151(75.5)
		한부모와 자녀 & 조부모와 손주	42(21.0)
맞벌이 여부		기타	7(3.5)
		맞벌이	95(62.9)
주관적 사회계층		외벌이	56(37.1)
		상	41(20.5)
		중	124(62.0)
		하	35(17.5)
		전체	200(100)

1) 다문화 가정 유형

- ①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서 태어난 국내출생 자녀가 있는 가정
- ② 국제결혼가정(국외출생):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가 있는 가정
- ③ 외국인가정: 부모가 모두 외국인(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등) 이며 한국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

1. 아이들의 국가정체성

문1) (다문화가정 아동) 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 조사된 다문화가정 중학생 중에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로 생각하는 아동은 72.4%(평균)로 국내출생 자녀가(75.0%) 국외출생/외국인가정(60.0%) 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1〉 다문화 가정 아동의 나라 소속감

단위: 빈도(%)

나는 OO 나라 사람이다		한국사람	부모님 출신나라 사람	한국사람 & 부모님 출신나라 사람	잘 모르겠음	계
전체(다문화 가정만)		63(72.4)	3(3.4)	18(20.7)	3(3.4)	87(100.0)
다문화 가족 유형	국내출생	54(75.0)	-	15(20.8)	3(4.2)	72(100.0)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9(60.0)	3(20.0)	3(20.0)	-	15(100.0)

문2) 한국문화/한국생활 선호도

- 먼저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88.51점) 비다문화 가정 아동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두 번째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자랑스러움 역시 다문화 가정 아동이(84.29점) 비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는 바램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이(84.67점) 더 높고 향후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를 다니고 싶다는 아이도 다문화 가정(82.76점) 더 높아, 전반적으로 비다문화 가정에 비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좋아하고 있음이 확인됨

〈표 2〉 한국문화/한국생활 선호정도

단위: 빈도(%)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합계	4점 기준 평균	100점 환산
한국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를 즐긴다	전체	12(6.0)	188(94.0)	200(100.0)	3.56	85.17
	다문화 가정	3(3.4)	84(96.6)	87(100.0)	3.66	88.51
	비다문화 가정	9(8.0)	104(92.0)	113(100.0)	3.48	82.60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전체	20(10.0)	180(90.0)	200(100.0)	3.36	78.50
	다문화 가정	5(5.7)	82(94.3)	87(100.0)	3.53	84.29
	비다문화 가정	15(13.3)	98(86.7)	113(100.0)	3.22	74.04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전체	20(10.0)	180(90.0)	200(100.0)	3.40	80.00
	다문화 가정	6(6.9)	81(93.1)	87(100.0)	3.54	84.67
	비다문화 가정	14(12.4)	99(87.6)	113(100.0)	3.29	76.40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전체	29(14.5)	171(85.5)	200(100.0)	3.31	76.83
	다문화 가정	8(9.2)	79(90.8)	87(100.0)	3.48	82.76
	비다문화 가정	21(18.6)	92(81.4)	113(100.0)	3.17	72.27

문3) 나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기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 조사된 중학생 평균(72.13점)에 비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더 높음(78.45점). 다문화가정 응답자 중에서도 특히 한국국적을 가진(80.19점) 다문화 아이들의 자긍심이 더 높음

〈표 3〉 국가 자긍심: 다른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음

단위: 빈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5점 기준 평균	100점 환산	
전체		20(10.0)	44(22.0)	136(68.0)	200 (100.0)	3.89	72.13	
다문화 가정 여부	다문화 가정	4(4.6)	15(17.2)	68(78.2)	87 (100.0)	4.14	78.45	
	비다문화 가정	16(14.2)	29(25.7)	68(60.2)	113 (100.0)	3.69	67.26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여부	국적 있음	3(3.9)	12(15.6)	62(80.5)	77 (100.0)	4.21	80.19
	없음/ 모름	1(10.0)	3(30.0)	6(60.0)	10 (100.0)	3.60	65.00	

문4)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조사된 중학생 평균값(70.17점)에 비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75.25점). 특히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재외동포 비율이 높은 조선족(80.00점), 러시아/중앙아시아(80.95점), 미국/유럽(80.95점)에서 부모가 이주한 자녀들이 더 계층상승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표 4〉 대한민국에서의 계층상승 가능성

단위: 빈도(%)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합계	5점 기준 평균	100점 환산
전체		44(22.0)	156(78.0)	200(100.0)	3.11	70.17
다문화 가정 여부	다문화 가정	12(13.8)	75(86.2)	87(100.0)	3.29	75.25
	비다문화 가정	32(28.3)	81(71.7)	113(100.0)	2.96	65.49

2. 아이들의 다문화 사회를 맞는 태도

문5)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나요?

- 조사대상 중학생 평균(65.65점)과 비교할 때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신뢰도는 더 낮은 편이고 (58.58점)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 신뢰도는 더 높은 편(74.83점)으로 조사됨

〈표 5〉 우리사회 전반적인 신뢰도

단위: 빈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10점 평균	100점 환산
전체		28(14.1)	113(57.1)	57(28.8)	200 (100.0)	6.57	65.65
다문화 가정 여부	다문화 가정	5(5.8)	40(46.5)	41(47.7)	87 (100.0)	7.48	74.83
	비다문화 가정	23(20.5)	73(65.2)	16(14.3)	113 (100.0)	5.86	58.58

문6) 다음 각 집단에 대해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비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가족 및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만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임.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오히려 이웃, 처음만난 낯선 사람, 외국인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6〉 우리사회 집단별 신뢰도

단위: 빈도(%)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합계	4점 기준 평균	100점 환산
가족(친척 포함) 신뢰도	전체	9(4.5)	191(95.5)	200(100.0)	3.68	89.33
	다문화 가정	6(6.9)	81(93.1)	87(100.0)	3.68	89.27
	비다문화 가정	3(2.7)	110(97.3)	113(100.0)	3.68	89.38
이웃	전체	74(37.0)	126(63.0)	200(100.0)	2.69	56.33

신뢰도	다문화 가정	26(29.9)	61(70.1)	87(100.0)	2.86	62.07
	비다문화 가정	48(42.5)	65(57.5)	113(100.0)	2.56	51.92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	전체	21(10.5)	179(89.5)	200(100.0)	3.22	73.83
	다문화 가정	10(11.5)	77(88.5)	87(100.0)	3.24	74.71
	비다문화 가정	11(9.7)	102(90.3)	113(100.0)	3.19	73.16
처음 만난 낯선 사람	전체	169(84.5)	31(15.5)	200(100.0)	1.74	24.67
	다문화 가정	70(80.5)	17(19.5)	87(100.0)	1.91	30.27
	비다문화 가정	99(87.6)	14(12.4)	113(100.0)	1.61	20.35
한국에 사는 외국인	전체	93(46.5)	107(53.5)	200(100.0)	2.56	51.83
	다문화 가정	34(39.1)	53(60.9)	87(100.0)	2.75	58.24
	비다문화 가정	59(52.2)	54(47.8)	113(100.0)	2.41	46.90
해외에 사는 외국인	전체	114(57.0)	86(43.0)	200(100.0)	2.40	46.67
	다문화 가정	39(44.8)	48(55.2)	87(100.0)	2.64	54.79
	비다문화 가정	75(66.4)	38(33.6)	113(100.0)	2.21	40.41

문7_1)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담임 선생님 외에 나를 도와주시는 어른이 있나요?

- 조사대상 중학생의 77.5%가 학교 내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다문화가정 아동(73.6%)에 비해 비다문화가정 아동(80.5%)이 학교 내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음

〈표 7_1〉 학교 내에서 도움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계
전체		155(77.5)	45(22.5)	200(100.0)
다문화 가정 여부	다문화 가정	64(73.6)	23(26.4)	87(100.0)
	비다문화 가정	91(80.5)	22(19.5)	113(100.0)

문7_2) 학교 내에서 그런 어른이 있다면 나를 잘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인가요?

- 조사대상 중학생의 38.1%가 교과과목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반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교과과목 선생님(34.4%), 상담선생님(25.0%), 양호/보건 선생님(6.3%), 경비/보안관 아저씨(4.7%) 등 다양한 어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표 7_2〉 학교 내에서 도움 주는 어른

단위: 빈도(%)

		다른 반 선생님	양호 보건 선생님	상담 선생님	다문화 선생님	교과 과목 선생님	경비 아저씨 보안관	기타	계
전체		26(16.8)	9(5.8)	33(21.3)	2(1.3)	59(38.1)	5(3.2)	21(13.5)	155 (100.0)
다문화 가정 여부	다문화 가정	5(7.8)	4(6.3)	16(25.0)	2(3.1)	22(34.4)	3(4.7)	12(18.8)	64 (100.0)
	비다문화 가정	21(23.1)	5(5.5)	17(18.7)	-	37(40.7)	2(2.2)	9(9.9)	91 (100.0)

문7_3)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숙제를 해야 할 때, 가족이나 학교선생님 외에 나를 도와주시는 어른이 있나요?

- 조사대상 중학생의 68.0%가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비다문화가정 아동(63.7%)에 비해 다문화가정 아동(73.6%)이 학교 밖에서는 어른들로부터 도움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됨

〈표 7_3〉 학교 밖에서 도움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계
전체		136(68.0)	64(32.0)	200(100.0)
다문화 가정 여부	다문화 가정	64(73.6)	23(26.4)	87(100.0)
	비다문화 가정	72(63.7)	41(36.3)	113(100.0)

문7_4) 학교 밖에서 그런 어른이 있다면 나를 잘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인가요?

- 조사대상 중학생의 39%가 학원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반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학원 선생님(25.0%), 복지기관 선생님(18.8%), 이웃어른(10.9%), 멘토 선생님(10.9%) 등 다양한 어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표 7_4〉 학교 밖에서 도움 주는 어른

단위: 빈도(%)

		학원 선생님	공부방 선생님	복지 기관 선생님	이웃 어른	멘토 선생님	학습지 과외 선생님	기타	계
전체		53(39.0)	7(5.1)	12(8.8)	20(14.7)	7(5.1)	12(8.8)	25(18.4)	136 (100.0)
다문화 가정 여부	다문화 가정	16(25.0)	5(7.8)	12(18.8)	7(10.9)	7(10.9)	4(6.3)	13(20.3)	64 (100.0)
	비다문화 가정	37(51.4)	2(2.8)	-	13(18.1)	-	8(11.1)	12(16.7)	72 (100.0)

문8_1)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 조사대상 중학생은 49%가 다문화교육을 수강하였는데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62.1%) 비다문화가정 아이들에(38.9%) 비해 다문화교육을 수강한 비율이 더 높음

〈표 8_1〉 다문화교육 경험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계
전체		98(49.0)	102(51.0)	200(100.0)
다문화 가정 여부	다문화 가정	54(62.1)	33(37.9)	87(100.0)
	비다문화 가정	44(38.9)	69(61.1)	113(100.0)

문8_2) 다문화교육을 받았다면, 어디서 받았나요?

- 다문화교육을 경험한 아이들 중에, 어디에서 어떤 기회를 통해 교육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비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을 통해 경험한 비율이 높다면(65.9%)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학교밖 지역기관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음(37.0%)

〈표 8_2〉 다문화교육 경험 내용

단위: 빈도(%)

(복수응답)		학교 교과수업시간 (사회, 도덕)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전체		56(57.1)	38(38.8)	31(31.6)	3(3.1)
다문화 가정 여부	다문화 가정	27(50.0)	18(33.3)	20(37.0)	3(5.6)
	비다문화 가정	29(65.9)	20(45.5)	11(25.0)	-

문9) (다문화가정 아동)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다문화가족임을 알렸나요?

-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78.2%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가족임을 밝힘. 이 중에서 또 75%가 친구들에게 본인이 직접 밝힌 것으로 집계됨. 특히 직접 친구들에게 밝힌 아이들은 그 이후 친구사이에서 달라진 건 없고(76.5%) 사이가 더 좋아졌다(17.6%)고 대답함

〈표 9〉 친구에게 다문화가족임을 알렸는지 여부

단위: 빈도(%)

학교 친구들은 내가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점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		모른다	계
	68(78.2)		19(21.8)	87(100.0)
(알고 있다면) 내가 직접 친구들에게 알렸나요?	그렇다		아니다	계
	51(75.0)		17(25.0)	68(100.0)
(친구들에게 알린 후) 친구들과의 사이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서먹해지고 친구들이 나를 다르게 대한다	달라진 게 없다	사이가 더 좋아졌다	계
	3(5.9)	39(76.5)	9(17.6)	51(100.0)

3.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이주민/다문화 지원 방안

문10)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나 사회보장에서 한국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한국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생각에 가장 많이 동의하는 편(85.34점)으로 조사됨

〈표 10〉 우리나라에서의 국적취득 외국인 권리보장

단위: 빈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5점 기준 평균	100점 환산
전체		10(5.0)	25(12.5)	165(82.5)	200 (100.0)	4.24	80.88
다문화 가정 여부	다문화 가정	1(1.1)	11(12.6)	75(86.2)	87 (100.0)	4.41	85.34
	비다문화 가정	9(8.0)	14(12.4)	90(79.6)	113 (100.0)	4.10	77.43

문11) 국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또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국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보편주의’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62.1%) 더 많고 반면 비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국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선별주의’ 방식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생각이(77.9%) 더 높아 대조적인 차이를 보임

〈표 11〉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방식: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단위: 빈도(%)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게만 지원	기타	계
전체		78(39.0)	121(60.5)	1(.5)	200(100.0)
다문화 가정 여부	다문화 가정	54(62.1)	33(37.9)	-	87(100.0)
	비다문화 가정	24(21.2)	88(77.9)	1(.9)	113(100.0)

문12) (다문화가정 아동) 요청하는 지원

-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바라는 지원은 학원비(34.5%), 학업관련 물적 지원(26.4%) 그리고 여가놀이 활동에 대한 지원(24.1%) 등을 주요하게 선택함. 이를 통해 정서적으로는 비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비해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경제적인 취약성이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 환경적 제약요건이 될 수 있어 경제적 지원과 기본적인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

〈표 12〉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바라는 지원

단위: 빈도(%)

순위	지원 요청 내용 (중복응답)	
1	학원비 지원	30(34.5)
2	물적 지원(책, 학용품, 학습용기기 등)	23(26.4)
3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농촌체험 등)	21(24.1)
	놀이공원 방문	
4	급식비 지원	18(20.7)
5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14(16.1)
6	방과 후 수업료 지원	12(13.8)
	이중 언어 프로그램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7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11(12.6)
8	진로지원 프로그램	10(11.5)
9	대학생 멘토링	9(10.3)

4. 결과요약 및 함의

-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국가정체성 및 다문화 사회 인식수준을 두 집단 간(다문화 집단, 비다문화 집단)의 비교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아동·청소년과 비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고자 기획됨. 본 조사 결과, 조사 대상 다문화가정 중학생(87명) 중에서 ‘나는 한국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보인 아동이 72.4%였고 ‘나는 한국사람 이며 또 외국인 부모님 출신국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아동은 20.7%로 나타남

-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비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 보다 한국문화/한국생활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한국문화를 즐기고,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면서 대학이나 회사를 다니고 싶다는 긍정적 인식을 드러냄. 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는 국가 자긍심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비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비해 더 높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상승을 할 수 있다’는 기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비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인식 기저에는 ‘사회 및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서 다문화와 비다문화 아이들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우리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신뢰도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확연하게 더 높았고 특히 비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가족이나 친분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만 높다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이웃이나 낯선 사람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우리 사회에 대한 이러한 신뢰의 차이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됨. 한편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관련 통합정책 및 국민인식이 아직 동화주의 모델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들도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들이 생활에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지 물어본 바, 비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학교 내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다는 응답이, 반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다는 답변이 많아 대조를 보임. 학교 밖에서는 비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주로 받는 반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복지기관 선생님, 공부방 선생님, 멘토 선생님 등 지역사회 지원기관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이와 같은 지역사회 기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교육을 접하게 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어렵지 않게 친구들에게 본인이 다문화가족임을 알리며 위축되지 않고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나 한국 사람과 동등한 사회보장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문화가정 아이들 동의 비율이 높았고, 반면 다문화가족 지원방식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느 관점을 선호하는지 물었을 때,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보편주의를 비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선별주의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바라는 지원에는 학원비, 학업관련 물질적인 지원 등이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체로 취약한 가족환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학습기회 보장을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전제임을 한 번 더 확인함